

전북지역 땅값 소폭 상승

완주군·전주 덕진구 차지 혁신도시 인근 개발 가능성

전북지역 올해 상반기 땅값이 1.04%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6월 누계) 전국 지가변동률이 1.25% 상승했고 2010년 11월 이후 6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1.12%)보다 지방(1.48%)의 상승 폭이 컸다. 이 가운데 전북은 지난해 같은 기간 1.28% 상승했던 것에 비해 올리는 소폭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1.39%),

계획관리지역(1.32%), 상업지역(1.17%), 녹지지역(1.11%) 순으로 상승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지(1.40%), 전(1.38%), 상업용지(1.19%), 공장용지(0.93%), 임야(0.85%)순으로 올랐다. 전북지역 주요 상승지역으로는 완주군(1.51%)과 전주시 덕진구(1.31%)가 차지했다. 완주군으로는 이서면(1.90%), 용진면(1.77%)이 높았다. 전주시 덕진구는 송천동1, 2가(2.13%)와 만성동, 장동(2.07%)가 상승했다. 이들 지역 상승요인은 전북혁신도시와 에코시티 인근으로 개발 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상반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6만 2,329필지가 거래됐고 지난해 같은 기간 6만 16,887필지 대비 6.8%가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3만 9,210필지로 지난해 상반기 3만 9,803필지 대비 1.5%가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거래량이 일부 감소하면서 전체 토지거래량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감소했다"면서 "최근 저금리 영향으로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의 토지매매 수요가 지속돼 예년과 같이 꾸준한 거래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중기청, 성능인증 발급

정석케미칼·에스지우드·한성산기 제품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일탁)은 27일 (주)정석케미칼, (유)에스지우드, (유)한성산기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발급했다. 이번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주)정석케미칼의 '내마모도가 향상된 노면 표지용 도료', (유)에스지우드의 '충격흡수 장치가 구비된 목재 미닫이 문', (유)한성산기의 '탄소 복합재 라이너링이 적용된 펌프 이더'. (주)정석케미칼은 도로표지용 도료와 방수바닥재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이다. 성능인증받은 제품은 교통 표지선을 그리는 데 사용하는 노면표지용 도료

로서 내마모도 향상을 위해 안료, 수지, 유리알, 충전용 재료 등을 혼합해 재규반사성을 향상시켰다. 주간에 비해 야간·우천시에 시인성 확보가 뛰어나 교통사고 위험성의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유)에스지우드는 목재창호를 제작하는 전문기업이다. 성능인증 제품은 학교 내 미닫이문에 탄성재질의 충격흡수 장치를 구비해 안전사고 예방과 오메가레일을 적용, 소음 및 개폐기능저하를 감소시켰다. (유)한성산기는 펌프기계장치를 개발하는 전문기업이다.

성능인증 제품은 기존 펌프의 라이너링을 탄소 복합재 라이너 링으로 대체해 펌프 효율 상승 및 성능 유지를 보완했다. 특히 소음과 진동 저감으로 펌프의 내구성이 향상된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 받는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정일탁 청장은 "성능인증을 획득하면 공공기관에게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어 중소기업 제품 판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제품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술개발에 힘쓰고 성능인증 획득에 도전했으며 한다"고 했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성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서를 발급,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광영 기자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파장

책임회피 약관 변경... 고객 반발 '확산'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해 해당 회원들의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이 이번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내용을 약관에 추가한 것으로 드러나자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20일 '인터파크 이용약관 변경 안내'에 대한 글을 공지하고,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렸다. 회원이 자동로그인, SNS연동로그인 등 ID를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담은 약관도 문제지만 변경된 시기는 더욱 논란이다. 인터파크가 약관을 변경하기 전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먼저 인지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인터파크는 강동화 대표 이사에게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비트코인(가상화폐) 30억원을 요구하는 협박 이메일이 전달돼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그 이후 약관 변경이 진행되자 일각에서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포석이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현재 인터파크는 시행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 이렇듯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일부 회원들은 지난 25일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공식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소송에 대한 서명을 작성 중이다. 누리꾼 'acm****'은 "인터파크에서 소비자들 몰래 약관을 변경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은 진실된 사과와 해결방안 뒤에 나와야 했던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뉴시스



동군산 서희스타힐스 홍보관 오픈

서희건설, 조촌동에 995가구 시공 예정

군산에 995세대 대규모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위한 동군산 서희스타힐스 홍보관이 문을 29일 연다. 중견 건설업체인 서희건설은 '동군산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군산시 조촌동에 995세대 규모로 조성한다. 서희스타힐스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전용면적 59㎡A형 157세대, 59㎡B형 109세대, 75㎡A형 62세대, 75㎡B형 326세대, 84㎡A형 319세대, 84㎡B형 22세대로 구성했으며 3.3㎡당 500만원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특히 동군산 서희스타힐스는 국제자산신탁을 통해 자금관리가 되므로 분담금 수납과 사업비 진행 등이 투명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는 전평형에 채광 및 공간활용도가 높은 4Bay 구조 및 알파룸, 대형팬트리 수납특화, 뛰어난 공간비를 설계적 적용해 입주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설계로 전면 폭을 확대해 일조량 및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했으며, ▲실용적인 내부평면과 지상 공원과 조경설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남향 위주의 단지배치로 채광과

환기는 물론 개방감까지 높여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이다. 아파트 부지는·군산의 새로운 중심으로 각광받는 동군산의 도심에 위치해 군산시청, 법원, 경찰서 등 관공서와 월명종합경기장 고속버스터미널, 동군산병원이 가깝고 5분 거리의 군산IC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수월하다. 더욱이 인근 페이퍼코리아 부지에 개발 중인 디오션시티에 롯데아울렛과 5만6191㎡ 규모의 유타형 스트리트몰이 들어설 예정으로 입주자들에게 편리한 쇼핑과 문화적 감성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군산 서희스타힐스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군산시·전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이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를 한 채를 소유해도 가능하다. 서희스타힐스 홍보관에서는 오는 8월 5일 오후 1시부터 서희아파트 홍보대사적인 배우 한고은이 아파트 장점에 대한 설명회 및 싸인회를 가질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농어촌공 새만금사업단 가나 아쿠마단 농촌개발 공무원 새만금 현장견학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박종대)은 27일 '가나 아쿠마단 농촌개발 및 채소단지 관개사업'에 참여중인 연수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새만금 사업현장을 안내했다. 가나 아쿠마단 농촌개발 및 채소단지 관개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국제농업협력 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사업관련 지역 공무원 및 농업인들이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연수생들은 새만금홍보관에서 국내 간척현황과 방조제 축조과정 등을 확인하고 신시33센터로 자리를 옮겨 배수갑문 운영을 통한 홍수예방 및 방조제 통제시설 등 운영 시스템을 견학했다. 현장을 둘러본 한 연수생은 "한국의 다양한 간척기술과 첨단농업기술을 토대로 지역농업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연수생들은 새만금 사업현장 및 원예특작과학원 채소 재배단지, 태양광 발전시설 등 국내 주요 농어업 관련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폭염에 치킨집 호황 맞나 3분기 외식업 회복 전망

더운 날씨로 인해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3분기 외식업 경기전망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2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2분기 경기지수는 70.55포인트(p)로 1분기(70.29p)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3분기 경기전망은 74.23p로 외식업 경기가 다소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최근 3개월간(현재) 및 향후 3~6개월간(미래) 외식업계의 경제적 성장 및 위축정도를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3분기 전망이 밝은 것은 여름철 보양식 등 계절음식의 수요가 늘어나는데다 더운 날씨로 인해 배달음식을 사 먹는 빈도도 늘어날 것이라는 외식경영주의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 지수를 살펴보면 기타 외국식(96.34p→96.96), 서양식(85.56p→89.27p)과 비알코올음료점(84.96p→87.39p)의 2분기 경기현황 및 3분기 전망이 가장 밝은 것으로 조사됐다. 2분기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던 치킨전문점 경우 3분기 여름철 치맥(치킨과 맥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회복세가 가장 뚜렷(67.88p→78.11p)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80.23p→87.15p)의 성장세도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LH - 완주 삼봉지구, 공공용지 매매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분부는 완주군과 완주삼봉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보건소 등 12개기관 입주를 위한 공공용지(3만8,313㎡) 매매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LH는 조기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6일 우미건설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LH와 우미건설은 오는 8월 8일 실

시협약 및 10일 도급계약 체결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완주군 산하 공공시설의 입주로 향후 완주삼봉지구 조성용지는 물론 아파트 분양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8월 대지조성공사 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광영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